

義俠의 아들

58

Inches 1 2 3 4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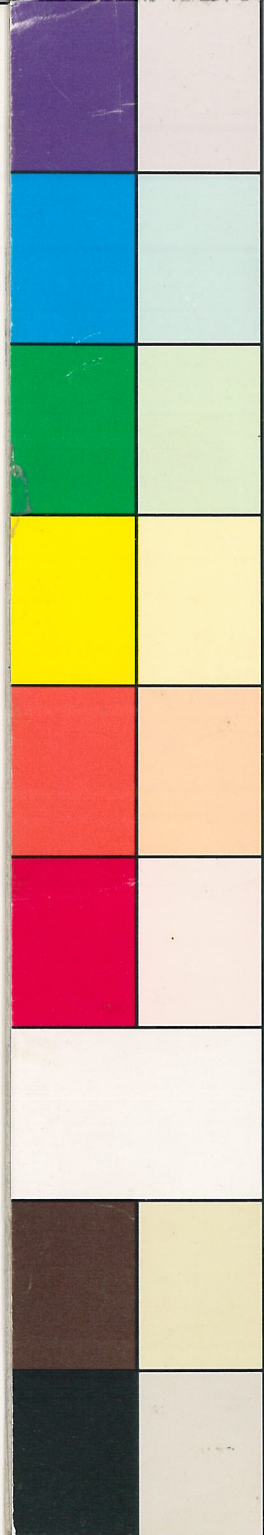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소설에 의 협의 아 戀愛小說 義俠의兒

ON

미국 석극가 디방에 혁사탈(赫司脫)이라 하난 사람은 부자장사이다 넷날 도주  
공과 갓흔인물 노재조도잇고 장사도 잘하난터이다 혁사탈은 항상 친구를 피해서  
대체로 말할량이면 전쟁을 해서 나라를 얻는것보다 장사를 해서 나라를 얻는것  
이 낫다 하오

이 말로의 논하면 이 사람의 흥감을 대략 알것이다 사람된 범절이 강개하며 의과  
가잇고 호협스러오며 상쾌하기 비범하다 아달 노이불탈 하나를 두엇다 나히  
열네살에 일표인재가 출중해서 혁사탈의내외난 사랑하기을 장중보옥갓치한  
다 노이불탈은 비록 나히어리나 두각이쟁녕하며 자질이명민하야 보난사람으  
로 공경할만하다 그썸만아니라 이 사람의 뇌속에는 의협성질이 드러서 뇌속  
々한 회포가 잇스며 가장기버하고 질기난바난 유명한 사람이 저술한 소설  
이다 그러함으로 이후에 혼란동디 할만한 사업을 한것이 모다 소설을 만히본  
호력이다 소설이란것이 무손물건이나 하면 가장 이 풍역 속하기에 족할만한것  
이다 무손물건이나 하면

혁사탈은 중년이후로 슬하에 다만 아달 하나를 두엇고 집안형제가 녀々히  
냄으로 집에편안아잇서々 아달의 교육에나 종사하며 족금이라도 부족한곳



업섯다 이것지 절절게 지내다가 뜻바게 홀런 부인이 병이드러 의약으로 지  
구호하나 효력이업시 오래지아니하야 도라오지못할길노갓다 혀사탈은 부  
과 은애가 남달니지내다가 일조에 외로운 거림자을 감상해서 정신이 점々 쇠  
패하야 감으로 마음에 생각이 다

아해 나히 차々 만하가난데 버려두어서 저의평생을 그릇치지 못할터이니  
상무학교에 보내여 공부나식여 졸업을 맛게되면 가히 내사업을 계속하  
겟다

생각이 이에밋치매 노이불탈노 번디방 상무학교로가서 공부를 하라고하얏다  
노이불탈의 마음에난 상무두자가 맞지못하고 가장 조하하난것은 모험을하고  
정담하난일과 특별이 부러하며 사모하난것은 영웅과 의협의 사업일다 상무  
학교에난 가지아니할것이나 모친이 새로 도라갓스매 부친이 하라시난것을거  
역하면 부친의마음이 상하사만년에 병환이나실가 두려워 잠간하라시난 말삼  
대로 하얏다가 다시변동을 하려한다 노이불탈은 부친의명을쫓차 학교에 드  
러간뒤로 먼저난 자유치못하다가 차々 날이오래감으로 자연관습이 될뿐아니  
라 이 사람의 연품이 총명함으로 다른사람은 두시동안이나 배울것을 한다면  
맞치고나서 소설도보며 공도차서 일신에 특별한 성공을하얏슴으로 매양 시  
험을볼때며난 번々이 우등일다 학교동점중에 매불리라 하난사람이 그학교학

생중애난 출중한 인물일뿐만아니라 학식이 부섬하고 상모가 비범하며 성정  
과 괴질이 온화해서 남드리 그풍채을 한번만보면 패복함을 깨닫지 못하난터  
이다 그사람과 노이불탈은 괴미가 셔로마점으로 정의가 두터웁다

광음이 살갓타여 가을이가고 겨울이오매 임의 일년이 지내엿다 하로난 두사  
람이 한가히 말을하다가 노이불탈은 상무가 번래 자기의 원하난바가 아니라  
하니 매불리난 하난말이

그러하면 내년에난 엇지하려하오

(노이) 학교에를 오고 아니올것을 미리정할슈업소

〔매〕 그대가 만일 학교에를 아니오고보면 우리가 언의때나 다시 오래도록  
외여불난지 알슈업소구료

말을하고나셔 탄식함을 깨닫지못한다

(노이) 이렛케 할것이업소 우리가생사간에 갓치할량으로 이성형대를 맺게되  
면 장내에 남북에 갈녀잇셔도 소활하기난 면하지아니하겠소

매불리난 이말을듯고셔 조하하며 택일을해서 삼혈동맹을해서 형제로매졌다  
일노쫓차 이두사람의 정의난 더욱친밀하게지낸다

하로난 노이불탈이가 홀런 자기의집에서 전보를 보낸것을보니 자기의 부친  
이 병이위중하니 급히도라오라고한것이다 노이불탈은 이전보를바다보고마



음이 산란하여서 속으로 생각하난 것이다

일찍이 이러할 줄을 알았든들 여괴로 공부는 무엇하려왔스라 일년 동안에 아버지께 갖가지 잊혀보기를 삼십일이 못되었지 이제 비록 빨리 갈지라도 뵈을 난지 뵈지도 못할 난지 아지 못하겠다

생각이 여괴 이르매 대성통곡하며 한편으로 떠나갈 것을 슈습한다 매 불리난 이 사람의 하난 양을 보고 또한 슈족을 놀리지 못하여 하난 말이다

내가 그대를 대신해서 선생님께 가서 슈유를 잊고 또 가서 마차를 불너다가 그대를 빨리 가게 할 터이니 지체 말고 가시오

말을 하고 나서 나란 듯이 나아간다 노이불탈은 총각이 행장을 슈습하야가지고 학당에서 나와 문을 나랴할 제 맞참보니 매 불리가 마차를 말서 불너가지고 왔다

노이불탈은 마차에 뛰여오르며

나난가서 때々로 그대의 편지를 붓치리라

그마차난 번개갓치 다라난다 매 불리난 우두커니셔々 한참을 바라보다가 홀로 처량하게 학당으로 도라왔다

노이불탈의 집이 학교에서 사십리가 남짓한 길일다 그마차가 비록 빠르게가 나 노이불탈의 급한 마음에 초조해서 다만 차부를 독촉함으로 두점 동안이 못되야 문득 자기집 문전에 이르렀다 문령을 누르매 하인이 문을 열고 나오며

주인공이 불성인사를 하얏소 다만 당신이 도라오기만 기대리고 잇셔요

노이불탈은 급히안으로 드러가서 자괴의 아버지를 보니 싸임의 괴운이 씌어 진것갓다 압호로 갖가지가 면서

아버지 아버지

불으기를 여러마디를 하얏섯다 혁사탈은 노이불탈의 부르난 소리에 눈을 겨우 떠보며 간신이 하난말이

사람이 조석의 화복이 잇기로해서 내가 소료받게 이 지경이 되었다.....

..... 너는 데일에 상업을 바리지마라

이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괴운을 통쳐못한지 반시 동안에 영々 황천길노

갓다

노이불탈은 애통하다가 혼절하야 괴지사경이라 노복드리지성 구호함으로 피여나셔 처상을 하고 정신을 수습하야 자괴 아버지가 살 었을 때에 남들과 거래하든 장부와 남아지 가산을 점검해서 보니 대략 오만여방이나 된다 일々히 세음을 맞치고 나니 반달이나 되야서 비로소 쏏치났다 홀로 자괴한 사람이 적막하기가 짝이 없다 마음에 생각이 다

상업이란것은 아모래도 내게난 당치아니한 것이니 학교에는 또가서 무엇할



편지 한장을 써서 매블리의게 보친다

우리 아버지님이 임의 세상을 버리시매 나란 몸을 떠나서 학교에 갈슈가 업기로 사실을 아시게 하옵내다

노이불탈은 집에잇서々 일반의 정담과 경찰하난 친구를 사귀여서 자유로지낸다 이 사람의 성정이 변래 호매하고 담대함으로 저와갓흔 친구를 사귀여항상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의심되고 위험한것을 정담하기를 힘썼다 따라다니기를 수십차에 정담하난데 괴교한것을 모다배웠다

매블리난 나히 약관에 가세가 또한 풍족지 못하고 나히 만홀으로 제마음에난 일년에 졸업을 못맛치난것을 한탄하나 원래 학문이란것은 이와갓치 열등은 못하난것임으로 매블리난 금한성품을 견대지 못하야 죽기로써 공부를힘써갈수록 학문이 왕양대해와갓되 다만 언덕에 올을날이 업난것을 근심하야 도로혀 몸이 점々 깨어름을 매닷지 못한다 호로난 상에 누어서 병으로 알타가노이불탈의 편지를 바다보미 학교에를 다시 오지아니할것을 말한것이다 마음에 더욱조민해셔 슈족을 일은것과 일반이다 감상하기를 한참을하다가 생각이 자기의몸에 이르러서

생계난 가난하고 세월은 흐르난 물갓흔데 다시 돌쳐생각이다

넛적 호걸드리 래반이나 한미한데셔 나왔스니 엇지 모다 학교에서 공부한것이라 나난 이제 학교에를 나가서 생활할 묘책을 생각지 아니할고나무를 팔나단이거나 깨를 잡나데난 이르지 아니할터인즉 한편으로난 일을하며 한편으로 학문을 연구하지 못할나구

주의를 정하고 병을 칭탁하야 집으로가셔 치료하겠다하고 나셔々 천々이 생활하기를 썬하려한다 슬푸다 괴한이 박두하면 노새가 밀가난것을 두려아니하난 세음으로 세상에 오직 아도물이 잇스되 가장 권세가 잇기로 다소영웅을 매물함을 아지 못하얏섯다

매블리난 학교에셔나와 집에 도라옴으로쫓차 허다한 친구의게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부락하얏다 몇칠의 지나셔 친구하나히 차져와서 매블리를 보고셔 한낫 괴회가 잇난것을 말한다

언의곳 우편국에서 서기하나를 구하난데 다만 그우편국 총사々 묵한아가 극히 간활하니 갓지일을하기 어려웁도다 사람을대접함이 심히 각박하매그대가 능히견달난지 쫓에엇더하오

블리난 생각을한다

남의밥을먹고 일을하난터에 엇지 쫓고 언짜난것을 가려할슈잇나  
엇처럼 생각을하고 대답을한다



나난 그런것은 겁내지 아니하오 그사람이 아모리 교활하다하나 내가 맛흔

책임만 근간이하면 고만이 아니겠소

그친구난 그러하겠다하고 우편국에다가 천거를해셔 석괴의 소임을 맞게하얏다 매불리난 우편국에올가셔 총사사 묵한아를보앗다 그사람이 모양이 엇더한고하니 다박 슈염이 함부로나셔 얼굴이 반만 드러나 게우 눈파 코와 귀만 보인다 나흔 사십이 남고 얼굴은 헌데 한쌍 눈은 반쯤 자고 반쯤 깨인것갓다 머리는 썩죽하고 코난 옷둑하며 부리난 도야지와 일반이다 매불리난 드러갈때에 하인이 등괴를 한고로 묵한아난 매불리가 드러오난것을 보고셔 몸을 이러셔난것갓치하면서 모자를 벗난 모양을하다 인하여 안지며 못난말이 그대를 불으기를 매불리라하오

〔매〕 예 그리합이다

묵한아난 듯난동 마난동하며 무엇이라고 몇마디를 하난것처럼 하더니 나아간다 매불리난 생각한다

이사람이 참괴상하기가 심하고나 한쌍눈은 맞치 여호의 정녕갓고나 그러하지마난 내가 임의여괴를왔스즉 제가 엇더한것을 관제할것업시 아직잇셔보자

매불리난 이날노부터 우편국에잇셔 근신하기를 남달니하야 일을하난고로조

금이라도 협을 잡을것은 업섯다 광음이 살갓타여 또일년이된것을 매맞지못하얏다

석극가에 유명한녀자 한사람이 잇난데 이녀자난 매불리의 표매니 일홈은적여극난이다 성정이 온유하며 돈후하고 얼굴이 아름다와 석극가말고 유독이나 파리를 다셔러도 이사람의 인물에 비할자난 업슬만하다 적여극난은어려서부터 매불리와 한가지로 자라나셔 동모로 지내다가 장성한뒤에도 항상 만나보고 학문을 담논하난것이 지괴지우일다 그러하나 이두사람의 외면을보면 극히 공경하나 마음으로난 서로 가장 사랑하난리일다 비록 석로사랑은하긴난하나 피차에 모다 말노 선포하난법은업다 이것은 무슨연고인야하면원리 매불리가 적여극난을 사랑함이 극진하나 그러하나 공경하기를 하날이나 황데갓치하고 말한마디라도 당돌이 함이업고 적여극난은 매불리의 저갓흔신정을보고 또한바로 말하기 어려움으로 항상 말노 저의뜻을 정답해셔 혹조하도하며 혹로여워도하나 로여워 하난것으로 문득 정이 업지아니하고 조하난것으로 가히 뜻을 설파치못한다 매불리난 비록 한갓갓치 공경은하되 점々매다라알고 마음으로 감안이 요량한다

표매가 과연 이와갓치하면 엇지던하에 데일되난 아름다운 일이아니되겟느냐 또제가 말노 자조나을 근데리난것을생각하면 일정 법연이 하난것은



아닐다 또나의 재모를 생각해서보면 저사람의 배우가 될것까지 아니해서  
마음에 잊지될가 하다가 종말에 또생각하기를 자괴의경황이 좇치못해서학  
교도반도에 폐하얏스니 만약 이와갓흔사람으로 안해를삼고보면 잊지바라  
난바에서 지나지아니하랴 다만내가 비록 이와갓흐나 저난 호말이라도 내  
가 엇더한것은 살피지아니하고 항상 말노나의 의사를 정탐하난것을보면  
나난 가히 감동할것이다

이것은 매불리가 평일에 생각하난바이다 매불리난 다만 한하난것은 한번 괴  
회가업셔々 자괴가 격여극난의게 사답디로 경중하고 애모하난 마음을 자서  
히 표백지 못함일다 마음으로난 비록 이러하게 생각을하나 다만 자괴가 우  
편국 석괴로잇슴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선것이요 총사사가 순편한 사람이되  
지못함으로 일노인하야 특별이 근신하며 발자취를 문밧게를 나가지 아니함  
으로 도로혀 학교에 잇슬때보다도 격여극난과 쎄々로 만나든것에 비하지 못  
하게되얏다

하로난 매불리가 우편국일을 다맞치고나셔 압뒤를 생각하매 울적한 괴운이  
나셔 인하야 생각이다

나난 이제 잠간 슈유를하고 우리표매를 한번가서 보겟다

이와갓쳐 생각을하고나셔 문한아의게로가셔 슈유를하고 마차를 불너 타고 일

각이 못되야셔 격여극난의집 문에 이르렀다 문령을 누르니 하인이나와 문을  
열고 매불리를보더니 하난말이

주인의 내외분이 일가집에올 가시고 아니게심니다

매불리난 이말을듯고 우두커니서셔 감안이 생각이다

내가 오기를 공교히 하얏고나

(하인)당신은 좀드러와셔 안지시오

(매) 그럴것업소 다시오리다

매불리난 말을하고나셔 도라셔 문을 나오려할지음에 홀연드르니 뒤에서 부  
르난 소리가난다

오라번이를 못본지가 오래되얏소

매불리난 머리를 들어서보니 원래이난 격여극난일다 깃분것을 비할데업셔々  
급히모자를 버셔들고 손을잡으면서

누의난 나가지 아니하얏소

(격여)번래 어머님과 갓쳐 가려하얏더니 감괴가 드러서 가지못하얏소 오라  
번이난 좃소

(매) 감괴가 드러다 하면서 바람을 씌고 나왔소

(격여)관계치 아니하여요 내가 저괴서 책을보면서 드르니싸 하인이 대답하



기를 주인내외분이 모다 아니 계시다 하고 또 오라번이 다려 드려와서 안지시  
라 하난 소리를 듣고 나난 오라번이가 온것을 알고 나왓소 저하인이 못나서  
나난 집에 있다 나 말을 못했소구료

두사람이 갓치 안으로 드러가며 격여극난은 하난 말이  
오라번이 난 날과 서실노 드러갑시다

매불리난 참 좇타하고 두사람이 서실노 가서 방문에 이르매 향피로운 냄새가  
사람으로 심신이 깃겁게 한다 두사람은 방으로 드러가서 빈주를 난와 안져서 보  
니 창은 밝고 책상은 정결하기 비할데 업난데 가온데 탁자우에 난 한쌍 넷날  
자괴병을 노앗난데 한병에 난 홍백월계를 켜졌고 또 한병에 난 옥과 갓흔 매화  
가지를 켜졌다

〔매〕 시방이 시월인데 이뻐이 어셔났소

격여극난은 우스며

이것은 내가 화학을 작난으로 시험한것인데 편지가 오래지요

매불리난 또 한우스며

누의가 참 재조가 좇소구료

말을하며보니 재리갓 탁자우에 책한권이 흐르려져서 노인것이 당장에 보다가  
노흔모양갓다

〔매〕 누의난 무슨책을보시오

〔격여〕이책은 화성돈이가 구라과 글노 맨긴 소설이애요

〔매〕 누의가 감리가 드렸다면 서 책을보시오

〔격여〕심하게 잇스면 더구나 답하게로해서 소일노보지요

〔매〕 그책에 난 무슨말 한것이요

격여극난은 얼굴이 불거지며 정색을하고

이것은 자유로 혼인을 하난것이애요

매불리난 이말을 듣고 셔아모소리도 아니하고 잇다 원래 자괴의 마음속에 품  
어잇든것을 졸련이 발포하듯 한것이다 이때에 이방속에 비록 다른사람은 업  
스나 제가원래 공경하기를 하날이나 황데갓치하든 격여극난은 얼굴이 임의불거져서 다른  
이 용아하게 말할수난 업난터이다 또 격여극난은 얼굴이 임의불거져서 다른  
말을 할터이면 엇지 처신무디가 아니되랴 참 다정한것이 도시 무정한듯한것  
이다 두사람은 묵히 말이업시 서로대하얏다가 매불리난 생각을 돌녀서 괴  
회를 엇기어려운데 시방 말을 아니하얏다가 필련 후회를 하갓다하고 정히입  
을열녀 하든차에보니 격여극난이가 못기를

오라번이가 말을 아니하고 잇난것이 무슨뜻이요

〔매〕 내가 사람하나를 생각하얏소 지괴하난 사람하나만 어드면 가히 유감



이 업슬러이니 누의가 내게 허락을 하겠소  
 격여극난은 이 말을 듣고서 마음에 감상함이 있셔々 대답을 한다

그말은 대답하기가 어렵소 내가 남을 지기로 알면 남도 나를 지기로 알아야  
 아니하오 허물며 사물의일이 씨々로 변하는데 제가 저다려 무려보아도 박  
 명한것이 시방 비록 허락을 한다 하야도 장내에 엇지될난지 알슈잇소

말이 여괴이르려서 눈이 불거지며 울야한다 매불리난 격여극난이가 이와갓  
 치 하난것을 보고서 엇지할줄을 모른다 원래 격여극난이가 모든소설이 흥안  
 박명의 넷날 이야기을 화성돈이가 한붓으로 그윽한정을 그려낸것인데 일적  
 이 격여극난의 혼을 그책에서 빼아서 갓기로 생각이 자괴의 종신에 이르러  
 셔 무고히 마음이 상한것이 매불리의말에 그상감된것을 말한것이냐 매불리  
 야 엇지 알니요 정히 호로속에잇난 과란약이 무잇인지 아지못해서 생각이왔  
 다갓다 함으로 입을닫을고 말이 업기을 반일이나 하얏다 격여극난은 매불리  
 가 말을 아니하난것을보고 생각하기을 내가 말을 너무 당돌이해셔 저리하나  
 보다하야 말을 다시돌려 하려하다가 또구이가 될가해셔 우슴에말노 무려비  
 인이만 못하다해셔 우스여

우리난 책이나 갓치 봅시다

〔매〕 누의가 시방 말하난것이 무슨말이요

(격여) 그말은 또웨 하시오 오라번이가 우편국 키기로 잇기로 나난 자괴가자  
 괴일을 상량하난줄노 알앗소

이말이 별량그리 대단한 말이아난데 매불리가드 고 발련대로 할것을 알앗스  
 라 별안간 이러서며

여괴를 내가 안져잇슬곳이 못되기로해셔 나난간다

몸을도라셔 다라나기을 나는듯이 나아갓다 이갓기 하난것을보고 격여극난은  
 도로혀 놀나셔 병々하면서 생각일다

원래 내가한말이 조흔말은 아니되지만 자괴의게 대단이 허물될말은 아  
 난데 이럿케 하난것을보면 아마 오날 자괴의 괴운이 불평해셔 그러한것인  
 가

자괴가 말을 경솔이 한것을 후회하다가 재리에 쓰러졌다 일노부터 실낱갓치  
 부드러은정이 허다히 괴괴한정절을 쓸어내었다

매불리난 격여극난의집 문을나셔 괴운에셔셔 자괴의 집으로 도라와셔 몸이  
 자유치못함을 한탄하면서 상우에 쓰러져셔 스사로 생각을한다

사람의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움이 원래 이러하다 면대해셔 사람을 엇지그  
 리 업신역이는고 그러하나 가히 의석한것은 세상에 다시업난 아름다운자  
 질노 엇더한 사람의 배필이될지 알슈업난것이다 이후로난 나난 맛당히 그



사람과 사랑하든정을 쓴단것이 도로혀 건정하다

생각이여괴이르매 분하든것이 봄눈갓치 스러지고 래연이있다 그리하자 하인이 제역밥을 갖다가 늦난다 매불리난 포도주두 어병만 마시고 면보난 먹도 안코 자려한다 이 사람의 마음에 진키 아모일도 업난가 한참잇다가 술이 취해셔 오르니 조히 견대기가 어려워셔 업치락 뒤치락하며 잠을 일우지 못해셔 반밤이지 난뒤에원 몸예열기가 불갓치 이러났다 잊흔날 일직 의원을 청해다가 진찰을하얏다 의원은 진찰을하고

감기에다가 간이 올한 징정인데 병은 비록 중한 징제난 아난듯하나 일이 일 동안에난 차복되기가 어렵소

의원은 약으로 치료할것을 말하고갓다 매불리난 하인을 우편국에 보내셔 일 주일동안 조리하기로 슈유를하얏다 일노조차 매불리난 병예 열기여 상석에 누어잇기를 오래하얏다 비록 약이 병은 낮게하얏지나 그사람의 마음에잇난 일도 낮게할슈는 업섯다 그러함으로 능히 이러나셔 일을 보살필슈가 업기로해서 한인을 또 우편국에 보내셔 계속해서 슈유를어다오라고 하얏다 하인이 반일만에 도라와서 말이업시 신척이 보기에 조치못하다 매불리난 못기를

아모말도 아니하든나

(하인)말을 아니하여요

매불리의마음에난 하인의 행동이 자못 의혹되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저바 렸다 하로를 지나고나서 매불리난 병을 강잉해서 뜰에내려 신선한 공기를마 시며 소견을 하려하야 하인다려 신문을 사서오라하야 보다가 홀연보니 우편 국서기 매불리란 일홈자가 드러났다 무엇이라 하얏나 자제보니 말한것이 괴과하다

우편국서기 매불리난 신용이업난 사실이 잇셔서 총사사 묵한아의 게내여 쪽갓다 하얏다

매불리난 이것을보고 괴상도하고 분한마음을 견델슈업셔 위선 하인을불너서 못난다

네가 우편국에 갓든일이 엇지되얏길내 날다려 말이 업섯나냐

(하) 말을 아니한것이 다른사닥이 아니애요 슈유를하라 우편국에를 갓더니 별말업시 편지를써서 주난양을보니싸 좇치못한일을 말한것갓기로 당신의 병이 꽤히 낫지도 못해서 마음이 불평할가해서 그편지를 드리지 못하얏지 요

매불리난 기가맥혀셔 한참잇다가 편지를해



하인은 그제야 죽기에서 편지를 집어내주니 매불리난 바다보고나서

너는가서 마차하나 불너오나라 우편국에를 가갓다

하인은 매불리가 불갓치 성이난것을모래 권하지아니 할슈도 업고 권치아니 하난것도 올치안타하야 주저한다 매불리난 연해서 지축을하난데 감히 거역 할슈업서 마차를 불너왔다 명예를 목숨과갓치 역이난 매불리난 이디경에 이르러서난 엇지 병든몸을 도라불슈 잇스랴하야 몸을이러서 곳나아간다 하인은 급히 외투를 가져다가 입히고 붓드려서 마차를 래왔다 마차난 우편국을 향하고 번개갓치가서 문에 당도하얏다 매불리난 마차에셔 내리며 곳드러갓다 다만보건대 묵한아는 책상압해 안젓다가 매불리가 드러오난 것을보고셔 이러나면서

병이 쾌히차복이 되얏소

말을하면셔 압흐로와셔 손을잡고 교의에안지라하며

여러날 못모앗더니 척슈하기가 저갓치 되엿스구료 엇더한 의원을 보앗소

매불리난 제가 이모양으로 하난것을보고 도로혀 귀가맥혀셔 잠々하고 대답을아니한다 묵한아는 또못난말이

앗가 로형의 손을잡아본즉 차기가 어름갓흐니 바람을 쐬지안난것이 조흔 데 공연이 출립을 하얏소

매불리난 분한것을 못익이며 생각이다

내가 저갓치 다정한듯이 하기로선이 내가 너다려 할말을 아니하겠느냐 분한것이 북받쳐셔 하난말이다

내가 오날병을 무릅쓰고 왔는데 내가 무사할줄도 아나냐 공연한 외양치레 난고만두어라 내가 너다려 물을것은 내가 병으로해서 몇칠동안을 슈유했기로내가 엇지해셔 나를 무고히 내보냈스며 설혹 내여보낸것은 막논하고 신통이 업는사실노 내여쫓았다하니 내가 네게 무엇이 불신통이기로 내여 쫓았다 하얏나냐 분명이 말을하야라

(목) 로형은 엇지저렷케 말을하오 우리가 평일에 원슈가업고 또 항상 로형을 돌보아 주든터인데 내가 무슨일노 로형을 내여보냈다고는 할슈업고 그 러하지마는 나는 이우편국에 사사로잇고 로형은 셔기로 잇는터인고로 다만 공사로해셔 공변되이 처관한것이니 비록 형제간이라도 사정은 쓸슈업지안소 나난 로형이 랑해하기를 요구하오 우리가 이후에 친구는 친구요사 편 정분은 정분이 아니갓소 내가 로형갓흐면 이모양으로 하지안코 웃고말 할썬이지요 로형은 웨이렷케해셔 남드리 다알게하오

매불리는 이말을듯고셔 분한괴운이 더욱분분하며

내가 하는말이 모도 못는말 대답은 아니다 내가 밥을 어더 먹지를 못할가



애를 쓰는 줄도 아나나 내가 너다려 못는것은 내가 무엇을 불신용한 일이  
잇다는것을 무른것이 다 나는 명예에 크게 관계되는 일인데 너는 우슴에 말  
노 취지까지 하려는나 나는 돈을배불니 먹은일도 업고 또 불정한 노릇을하  
다가 네게 내여쭙긴것도 아니다 너는 자제 말해라.....

묵한아는 말이 맞치기를 기대리지안코  
엇지 말을 저대지하오 너 무과하구료

또소리를 나직이해석

로형이 명예의 관계되는것을 알면 두번 말할것이 아니오 지낸일은 불과해  
서 로형과 나만 알았거니과 만일 이모양으로 중언부언하게되면 참 좃치못  
할걸

매불리는 괴가맥혀서 슈족을 썰면서 냉소하는모양으로

내가 너를쳐음볼때에 네심정이 불양할것을 알았섯다 신문에 낸것이 네가  
한일이 아니나

묵한아는 이상이아는듯이

신문에 낫슬이가잇소 및지못할말이요 나는 이것을 분류이지내노라고 보지  
를못하얏소 어제신문에 잇습든닛가 오날신문에 잇습든닛가

말을하고나서 신문을집어서 한참보더니

참 그럿소구료 로형이 분해하는것이 고이치안소

한편으로 말을하며 한편으로는 문을열고 나가더니 오래도록 드러오지아니한  
다 전일에 자기를우편국에 천거해석 주든 사람이 드러오면서

당신의일은 참무망지치요구료 그중에 무슨연고가 잇는것은 우리가 아지못  
하오마는 다만묵한아의 괴식을보니사 당신을 대접하는것이 범연치 아니한  
가복되다 날다러 부탁해서 달나는말이 당신의게 말을잘해석 너무그리말도  
룩 하게해서 달납되다 장내에 여기를 다시와서 잇게되드래도 피차에 마음  
이 편치못하면 안되겠다고하며 엇지 주선하든지 당신으로 다시사무를 보  
도록 하갓다합되다 앓가 친구와 상약한일이잇서 간다구 하면서 당신으로  
안심케 하야달나합되다

매불리는 그말을듯고 괴가더맥혀서

그놈은 여호와 갓흔놈이닛가 저와 다시 여러말한들 소용이잇소 나만 괴맥  
힐뿐이지 여괴 오래잇서 무엇하겠소

이러나 々와셔 마차를타고 집에도라와셔 생각일다

남에게 잘되이지 못하기로해석 이제 더러운 소리를듯고 여괴잇슬슈가업다  
대강물건이나 슈습해석가지고 성포이로가셔 잇겠다

일노부터 매불리는 서극가를떠났다 매불리는 비록 격여극난의게 한번 그를



바닷스나 격여극난이가 었지 전심으로 그리했스나 하야 도로려 하로에 생 각하기를 열두시나 하얏지마는 이제와서는 참으로 인연이 씌어지게 됨으로 매 불리는 낮이 업서々 격여극난을 다시 불슈가 업는 것이 헤아려보건대 격여극난 은 필련 나를 더럽다 해서 버리기를 심이분에 이르렀다고 해서 전에 자괴의 혼 령이 하로에 열두번씩은 격여극난의 몸에 이르는 것을 지금와서는 격여극난이 란 녀자를 아조이져버려서 마음속에 두지 아니한다 또 격여극난이는 집에잇서 々 매불리로 해서 상사하는 마음으로 병이 되야 괴롭기가 죽기에 이른것을 매 불리가 었지 알앗스라 이러함으로 현하에 원통한 사정이 만흔것이다

격여극난은 그날자리에 쓰러져서 병어리가 활연을 먹은듯이 말이업다가 날 이저무러져서 저의부모가 도라왔다 격여극난은 정신을채려서 저의부모와 대 강이야기를 하는동안에 제역밥이되얏다 격여극난이는 밥을먹지아니함으로 저의부모는 못는다

나는 었지해서 밥을 먹지아니하느나

(격여)속이 편치아니해서 아니먹겟슴이다

(모친)네가 밤이나 낮이나 책만 보는것이 위생에는 해로운 것이다 그러하거 든 일직이 자거라

격여극난 그리하겟슴이다 대답을하고 자괴의방으로와서 누어자려하나 업치

락 뒤치락하면서 어이 잠이오라 말서 시계가 두점을친다 마음에 더욱화가나 서 이러나 안지니 이때에 전등은 켜졌난지라 양초에다가 불을켜서노코 책탁 에서 책한권을 집어들고 보려하나 무엇엔들 뜻이잇스라 생각을한다

번래일이 이지경된것이 터럭쑈 갓흔것으로해서 풍파가 이리난것인데 이 제와서는 후회를한들 소용이업다 그리하지마는 편지나해서 보겟다

필연을 다가노코 한봉편지를써서 봉해노코 시계를 쳐다보니 어언간에 세시 가되얏다 인해서 드러누어 잠이 잠잔드러다 홀련 매불리가 드러오며 하는 말이

네가 내안해가 되지못할터일다 내가 이말을하러왔다

격여극난은 그말을듯고 울면서

당신이 마음을 저렇게 먹고잇는이상에는 내가 아모리 죽기로 결심을 하얏 슌들 소용잇소

서로 정히 말을 하는동안에 별안간 여호 한마리가 압발을들고 할퀴려고 다 라든다 격여극난이는 놀나서 소리를지르며 정신을 차려보니 자괴의몸은오 히려 자리에누엇고 침상일몽일다 마음은 오히려 벌떡어리는것을 진정치못하 겠다 날은 발셔발갓다 죽금잇다가 집안사람드리 모다이러났다 격여극난이도 괴로운몸을 억지로 강잉해쳐 이러나 소세를하고나니 앓침밥이 되얏다 하인



을 불니셔 봉한편지를 주면서 우편국에다가 갖다두고 오라고 하얏다 하인아간  
지 오래지 아니해서 도라와하는 말이

편지를 갖다니코 왔습시다

(적여) 엇다가 두고왔기에 말셔왔냐

(하인) 여긔셔 갖가운 우체통에다 니코왔셔요

(적여) 이 못난것아 내가 너다러 우편국에다가 갖다두고 오라구 하얏지 언제

우체통에다 니코 오라든냐 매불리라고 쓴것도 보지못하얏는냐

하인은 감히 대답을 못한다 적여극난이는 할슈업셔 회답을 기대리고 잇기를

오륙일이 지났스나 비단 매불리의 종적만 볼슈업는것이 아니라 일자회답싸지  
업다 적여극난이는 먼산을 바라보면서 눈물노만 세월을 보내고잇다

묵한아는 매불리가 단여간후 몇칠잇다가 각처로 전할편지를 보다가 홀연이  
한봉편지를 보앗다 이는 매불리의게온 편지이다 글서를 묘히써쓸뿐안니라

분명한 규종필적이다 묵한아는 도야지와 방불한 주둥이와 다박슈염으로녀  
자의 물건이라하면 무심이 지내보는것은 업는 버르쟁인고로 자연이것도

적질노 쟈여보앗다 이편지를 본것은 관계될것이 업지마는 편지를 보다가 제  
혼을 일을 변하며 생각이 다

원래 이러하고나 매불리는 복역조흔 사람이로군 비록 그러하지마는 하날

이 날도 이편지를 보게한것이 엇지그속에 나와인연이 업슬는지 알겓나냐  
내드른지가 오래고 사모한지가 오래되야셔 목이마르도록 생각하기를 지극

히 한터이다 이괴회를 늦치지 못할터이니 신긔한 슈단을 부려보겓다

묵한아는 또매불리가 성포이로 썩나간것을 탐지해셔알고 깃버하면서 문밖글  
나지안코 각처로 분전할편지를 자기가 친이보고 받금을 식이나 다른사람드

른 그뜻을 아는이가업다 또몇칠을 지나셔 편지한장을보니 이것은 매불리의  
게가는 편지일다 글시가 전편지와 족금도 다름이업슴으로 묵한아는 급히집

어 감쥬어가지고 자기방속으로 드러가셔 쟈여보앗다

글을 매불리 족하의게 올니노라 첩이 우매한탓으로 그대의게 죄를지은것

을 대단이 뉘웃치오니 해아려보소서 전일 편지를 하얏스나 답장도 못본것  
을 의심하며 두려움이길혀셔 날보내기을 해갓치하며 뉘웃지 아닐때가업고

또드르니 그대가 남의 험언을만나셔 멀리갓다하니 첩의마음과 담이 모다  
썩여지는것갓소 도라생각건대 그대의 성실한것으로 엇지 남이험언하는것

을 두려하겓소 오래지아니해서 슈락셔출할것이오 다만 디각련애에 혼이썩  
에들기어려움이 가장 슬픈것이오 그대가 간뒤로 마음이 어지러운 실갓타

서 그대를 위하야 초취한것을 누가알고 불상이 역이갓소 말이 여긔이르러  
서는 마음과 손이 모다썩니지요 그대가 만약 첩으로 금슬지열에 두고자하



거든 속히 답장을하시오 한장 편지라도 보게 되면 그대의 것해 되시고 있는 것갓치 알겠습시다

표매 격여극난은 공경해서 올리옵나이다

묵한아는 이편지를 두어번보다가 접어서 죽기에너코 왔다갓다하기를 반시동 안이나 하다가 엇듯이 계교를 생각하고 그편지를 다시집어내서 휴지버리는 대상자속에다가 너헛다

매불리와 결의형제한친구 노이불탈이는 학교에서 나온뒤로 집에 한가히잇서 정담하기에 유명한 친구를 사귀여서 일곳잇스면 그사람들과 갓치가서 위험한것을 무릅쓰고 정담을하고 일이업는때에는 산양을해서 몸을단련한지 불과 일년에 문득극히조흔 안력을 얻성해서 모슬총으로 능히 이영리밧게 잇는 새를 맞치되 한번도 헛방이업고 몸이 경첩하기가 원숭이와갓타여 능히 가지 못할곳을가며 마음은 터럭갓치잘고 담은 몸갓치 커서 일을판단하기에 정제 해서 남보다 뛰여남으로 정담하기에 늘근친구드리개갓히 탄복을한다 노이 불탈은 일노부터 득의함이 비상하얏다 하로는 홀련이 한봉편지를 바다보니 이는 매불리가 성포이에서 붓친것이다 마음으로 싱각을한다

이사람이 지금성포이로가서 무엇을하고잇나

편지를 쫓고보앗다 먼저는 심상한말을하얏고 나중에는 액운을만나 서가난한

탓으로 싱의를함으로 일노쫓차 성명을숨기갓다는말이고 싣해는 만약 편지를 붓치려하거든 성포이 남시장 서로 일백삼십오호문패로 정하라구하얏다 노이 불탈은 편지를보고나서 의혹을한다

이사람이 전에내게 편지붓친것을보니새 우편국에가서 서괴로잇노라 하얏는데 이번편지에는 그말은 도모지업고 성포이로가서 성명이 숨기갓다 한 것을보니 이것이 무슨일인고 남의게 업는역임을 바든것이아닌가 아무런튼 지니가 한번가서 보갓다

마음을 이처럼 작정을하고서 집안사람의게

니가 성포이에를가서 단여을일자를 정할슈가업스니 누구든지와서 나를찾거든 네말노 대락이숨삭동안에 도라온다고해라

가방하나만들고 자전거에 올라안져서 성포이를향하고갓다

문한아가 제마음속으로 계교를싱각한것이 무엇인야하면 불과해서 매불리의 글시를모번해서 격여극난의계로 편지를써서보니서 격여극난의 마음속에 매 불리를생각하는것을 영영선도록 하게하야노코 다시무슨 계교를써서든지야 만의욕심을 채오고조 하는흥게일다 당장에 붓을들고 먼저편지초를써서노코 또생각을한다

저의들이 정이깊은것을 혀아려 보량이면 이만해도 서로거절이되는지



한참을 또생각하다

을치 이렇케하면 될것이 분명하다 격여극난의 편지를보고 답장하는것으로  
하되 너는 아모리 잊혀림 하나보다 나는 너와 정의를 믿고와서 분한  
마음을 참지못해서 임의 다른사람과 언약을정하고 오래지아니해서 결혼식  
을 할터이니 너는 이와갓흔마음은 다시너게두지말나고 하는것이 묘하고나  
마음에조아서 쓰기를 다하고나서 또생각을한다

격여극난이가 이편지를 바다보게되면 죽기로써 사모하든정이 변해서 다시  
보코조할마음도 업슬것이오 분해서 견대기도 어려울터이지

제마음으로 가장깃버라하면서 매불리의글시와 갓치써서 보쳤다

반달이나 지난뒤에 친구한나를 식여서 격여극난의 부친을가서보고 혼인말을  
하게하얏다 원래 격여극난의 부친은 장사하든사람으로 중년에혈 기가쇠해서  
극히 인척함으로 중히여이는것은 제을뿐이다 격여극난이와 매불리가 서로사  
랑하며 사모하는사정을 격여극난의 모친은 분명히 아난고로 몇번이나 저의남  
편의게 말을하얏스나 대답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난것은 돈잇는사위  
를 엿디서 제욕심을 채우고조 하는때에 묵한아는 지물노 그마음을 동케할량  
으로 격여극난의 부친과 친절한친구를 구해서 혼인이 되도록 소개하기를 묵  
한아와 혼인만 하게되면 만흔지물노 갑흐리라 하얏다 격여극난의부친은 그

말에욕심이 불갓타서 혼인허락을 하얏다 묵한아는 제나히 만흔고로 훗날의  
험언을 입어서 중도에 변이생할가 염녀해서 다시친구를보내 서격여극난의부  
친의게 말을하얏다

귀한영남으로 묵한아의게 혼인을 허락하심을 감격해서 성혼한뒤에 정을표  
할량으로 오만방영금을 보내갓다하오

격여극난의부친은 이말을듯고 생각밋기라 갓분마음에 아모조록 하로라도 일  
직이 혼인을하려한다 이러함으로 묵한아는 의심업시 격여극난이가 자기의슈  
증물이 되얏다해서 의기가양々하다 격여극난은 마음에 간곡한 사정이잇는중  
에 또이와갓흔 하날이 문혀지고 싸히 터지는듯한 고통을당하야 병든몸이 더  
욱초취해서 썩만 나맛스나 엿지할슈업는 정세는 자기의부모가 천방백계로  
썩이고 달내는 말이다

비록 혼인을 자유로한다 하지마는 이때것네가 마음을 분명히 붓친사람도  
업는중에 묵한아와 혼인을 하게되면 우리내외는 사위덕에 부가옹이 될터  
이니 설혹네마음에 맛당치 못할지라도 우리내외의 뜻을승수하야라

격여극난이는 다만머리를숙이고 말이업시 눈물만 뚝々떨러친다 지는해가서  
산에 너머가고 황혼이 되엿다 사람의 소리는 고요한데 거림자를 도라보니외  
롭기가 더욱썩이업다 눈물이 압흘가리엿스나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해서미



불리의게 또편지한장을쓴다

미불리 족하여 격여극난은 그대가 간뒤로 창주가 얻어지고 노심초사 하는 병으로 형용이 초취해서 죽기에 이른것을 그대가 잊지알았소 두번이나 편지를보내셔 용서하기를 비릿스니 그사정을 생각하고보면 극히불상해서 가히용서를할만하건마는 그대는 로하기를 골슈에 사뭇쳐서 모질고 독한말 노영々 쓴코 다시보지아니려 하얏스니 잊지참아그리하시오 이제는 할슈업 시되야셔 격여극난이는 비록 산날이나 죽은해와 갓흐니 그대는 진실노 무슨마음인지 알슈업소 그러하나 그대는 잊처럼 무정하건마는 첩이야 참아 저바리지 못할것은 백년언약을 죽어도 잊지마자는 마음이지요 그대가 잊지아니하거든 내가 혼인하는날을보시오 맛당히 흥한 소식으로 전할터이요 술후다 그대여 나는 일노부터 죽고살기를 임의판단하얏소 잊지해서 나를 쓴기를 못쓸것갓치하오 구원에가도 원통한한은 풀너지아니할터이요 글을 쓰기를 당해서 눈물이 압출가려셔 여러말을 못하기로이만긋치오

한편으로는 글시를쓰며 한편으로는 늦게가며 올기를긋치지아니하야 진쥬갓 혼 눈물이 폭포갓치 흘러쓰든 편지가 다져졌다 인하야 봉해서 우편국으로 보내셔 성포이로 전하게하얏다

묵한아의 우편국에 한낫 친구가 와서있다 이사람은 영국사람으로 석극가에

와셔 잇스나 아모일도 하는것이 업슴으로 반달전에 묵한아의 친구의게 소개를해서 우편국서기로와셔 잇는터이다 이사람은 근간하고 자상하기로해서 누가 좇타지 아니하는사람이업다 그뿐만아니라 일직이오고 늦게가는고로 묵한아도 깃버하는터이다 하로는 그석귀가 공교히 일이업셔 건이노라고 왔다가 다 하는지음에 편지를 맞타 분전하는 사람이 불너셔 하는말이

당신은 나를대신해서 이편지를 좀보아주시오 나는 다른일을 참간보고 올터이요 이편지를 각々두고 석지는마시오

(석귀) 그것은 잊지해서 석지를말나하오

(편지분전인) 성포이로가는 편지는 모다총사々が 보고보내려하오

(석귀) 그럼에는 알겠소

석귀는 안져셔 편지를보기를 반일이나 하는데 그사람은 오지아니하얏고 편지를 각々노흔중에 한봉편지가 성포이로가는 것이있다 스스로말이다

이것이 무슨사단이고 이편지를 감추어가지고가셔 잊지된일인가 보겠다

한참있다가 그사람이 온이싸 석귀는 자귀의 방으로와셔 그편지를 집어내셔 보니 이것은 격여극난이가 메불리의게 보내는것이다 쓰더셔 일편을보고나셔 좇치못한괴식으로

이편지가 참혹한 것이로구나 내가 드르니 묵한아가 새로이 정혼한 신부의



일홈이 이편지에 일홈과 갓흐니 이 사람이 아닌가 이편지사연과 갓흐면 장  
내에 일이나고 말것이다 내가 묵한아의 모양을보건대 요괴로운 형용이 필  
련코 비밀한사정이 잇는것인즉 내가 조사를 아니해불슈가 업는일이다 만  
약 무슨사단이든지 잡고보면 이녀자의 흉안박명을 구해셔보고 말터이다  
묵한아의 혼인날이 열을썸 겨해셔노교셔괴는 묵한아의 하인다려

총사사의 방속에잇는 슈지상자가 가득히차스니 내다가 래여버리자안소

(하인) 참 이젼슴이다그려 일전에 날다려 불에살나 업시하라하든것을 내가 일  
이밧바셔 이젼슴이다

말을하고나셔 슈지상자를 내다가노코 불을살으랴한다 셔괴는 압흐로오면서

여보댁은 돈을쓰고 심지안소

하인은 무슨말인지 아지못해셔

기게무슨말슴이오

(셔괴)이슈지가 돈이되는것을 아지못하오

(하인)이것을 누가산단 말슴이오

셔괴는우스며

이것을 버릴것으로아오 시방 저자에서 파는물건을 싸서슈는것이 모다슈지  
가아니오

하인은우스면서

여보 작난에 말을마시오

(사괴)누가 작난에말을 한단말이요 정말이지 팔야며는 이삼백금은 바들걸그  
리하오

하인은셀々우스면서

그러면 당신이 사실데요 이백방영금만 내시구료

(셔괴)그리하오 이백방을 줄터이니 저상자에슈지를 모와나를슈시오  
말을하고셔 자기방으로가더니 큰피상자하나를 가지고나와셔 여러되는데비인  
것이다

여괴다가 저슈지를 모다내서슈오

(하인)그리하리다마는 돈은 언제슈시려오

(셔괴)돈도 시방줄터이요

지갑을 집에내더니 소절슈한장을 내여준다 하인은 바다가지고보니 분명한이  
백방영금일다

정말노 사시려하오

(셔괴)정말이지 누가시럽슨말을 하겠소 그러하나 이말을 남다려는 마시오내  
가 별노이 쓸곳이잇서서 산것이니 만약 일이잘될지경이면 또이백방으로당



신의게 처사를할터이요

하인은 그말을듯고사 슈지를 모다 피상자속에다가 담아주고 다른조치를 어더

다가 불에태워셔 묵한아가 못드래도 대답할것을 예비하얏섯다

서귀가 슈지담은 피상자를 자기방에다가 갖다두고나셔 갖치잇는 사람의게부  
락해서 묵한아의게 일쥬일 슈유를어더가지고 자기집으로 도라올제 피상자를  
가지고와셔 밤낮으로 슈지를콜나 보아셔 매불리와 격여극난의게 관계되는  
것은 모다 차져내려하야 오륙일이나 골나보다가 두봉편지를어더내니 한봉  
은 격여극난이가 매불리의게로 보내는것이요 또한봉은 매불리가 격여극난의  
게 보내는것인데 이것은 묵한아가 편지를 보낸것이다 이편지 두봉을보고나  
서 마음으로 생각을한다

을루나 이것이 격여극난으로 매불리의게 향하는마음을 쓴케하도록 흥게로  
위조편지를 초잡은것이로구나 참그놈이 흉악도하다 그러하지마는 제가 내  
게장물을 잡혀쓰니 버셔날슈는 업슬나

한달전에 미국교사 하나히와셔 묵한아를 차져보는데 별일은 업시 다만 말  
하기를 유람차로 왔다한다 묵한아는 그교사의 모양을보니 얼골은 자지빚갓  
흐며 험다박슈염이났고 말은 썩잘하는데 피차에 관적을 못는데 묵한아는 묘  
시쥬사람으로 혈々단신이 여괴와셔 잇는것을 알앗다 그교사는 묵한아와 한

창슈작을 하다가 작별을하고 갓다 이교사는 누구인고하니 원래에 노이불탈  
이가 자괴의집에서 떠날때에 생각일다

내가 먼저 서극가로가서 분명이사실을 알아보고나서 다시매불리의게로가  
갓다

거름을 돌쳐셔셔 서극가로왔다 조용한곳을 차져서 잇슬생각으로 궁벽한곳으  
로 차져가보니 사면이 모다황장이오 당중해셔 일좌적은 루방이 잇는데 심히  
정결하다 감안이생각일다

여기가 참조흔데 엇디한사람이 저안에잇는 지알아보갓다

문에 이르러서 문령을차지나 업다 문을여러 달나고 몇번을 부르나 대답하는  
사람은 업다 엇지할슈염셔々 다른곳을 차져단이다가 주막에다 여관을정하얏  
다 한간 이청루가 길거리에 임하얏다 그곳에다 잇슬방으로 정하야두고 전에  
공부하든 학교에를 차져가서 두넛친구를 만나셔 반일이나 말을하얏다 이곳  
에못은지가 오래되지는 아니했스나 잇든곳에를 다시와셔보니 감상한 마음이  
잇다 전에 아든친구들을 무리본죽 졸업을 하고간 사람도잇고 매불리와갓지  
생애를 경영하고 간자도 잇스매 피차에 탄식하기을 마지아니하얏다 그중에  
친구하나히 하는말이

로형이 매불리가 고이한일이 잇슨것을 알앗소



(노이) 내가 대강듯기는 드렸소마는 자서한말은 듯지 못하였소 두분로형은 자 세히 아실듯하오

(친구) 그동안에는 로형과 동심한일도 업섯소

(노이) 년전에 학교에서 나간뒤로 편지는 게우두번만 보았고 다시는 못보았 소내가 어제여귀를와셔도 그사람이 이사해서 간것을 아지 못하였소 그러 하고로 친근하든새이에도 소원하기가 용이한것이라 할것지요

(친구) 그런사람과는 소원한것이 계관할것이업소 그사람이 돈을만히 먹었다 는 말을아지 못하였소 무슨 못된짓을 했든지 우편국에서 불신용한일노내 엿쫓기였다구 신문에싸지 나셔 누구든지 이일을 물을사람은 업섯소 로형 도생각해서 보오 그사람을 외양으로보게되면 누가 공경하고 사랑을 아니 하겟소 내용이 그러한줄이야 엿치알겟소

(노이) 원래에 이갓흐면 참우슈운 말이요 그사람이 평일에 말하는것이든지일 하는것이든지 엿더한 사람이요 로형이 말하는것이 누구든지 헤아려하는 말이요 로형이 친이보고 드른것이요 남드리 실정도 아지 못하고 애매이 하 는말인지 알슈잇소

친구는 한탄을하면서

우리도 친이보고 드른말은 아니오마는 네로부터 하는말이 길에서 가는사

람의입이 비라는데 더러운소문이 낭자한것이 계집과 관계가 잇는사정이라 합디다 간섭업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저것이 학교에서 인재를 교육한 것인 야고 비평을한다오

또한친구가하는말이

그말이 더욱흉악 한소리가 아니겟소 저의드른 석은물건으르 종일도록한 가지라도 바른일은 못하고 부형이 전해오는 재산을가지고 노름도하고 술 도먹으며 한다는일이 모다 우리학교에서사람과는 반대가아니요 비교를해서 볼것갓흐면 저의드른 바람이나 그림자를잡고 거짓말을 지어셔 일을내는 것드리 혹우리중에서 한두가지 잘못된 일을골나셔 구실을삼지안소 저의드 른얼굴이 둥거운것을 아지 못하는것이 아니요 저의가 엿지학생의 명예와 인격을 알겟소 밤낮으로 과리와 개갓치 하는것을 말할것잇소 나는 이말을 하면 머리털이 이려셔오 매불리를 내가두둔을해서 하는말은 아니요 설혹 불신용한일이잇고보면 한가지라도 부정한일이 업슬슈가 잇때소 남드리어 지러이 전하는말만 드른것이지요

또머리를 도리켜서 동접학생을 대해서

자네 우편국에서 일보는 사람의말을 듯지 못했나 총사々 묵한아라하는것은 사람은아니요 쫓겨들인 놀갓다고 하지안튼가



(노이) 매불리가 만약 참으로 원억할것갓흐면 슈략석출할날이 잇지요 제가 과연 그큰일을 했을량이면 우리의 명예세지 손상된것이 잇던케 분한것이 되갓소 그때에는 내 눈을 빼오 갓흔동접의 좃코 언짜는것을 아지못하는눈해셔 무엇하갓소

세사람이 또한참은 슈작을하다가 노이불탈은 먼저이러셔며 작별을한다 내가 긴절한일이 잇셔 유독을갈터이니 다른날 다시와셔 만나볼터이요 매불리의일이 엇지되나 로형드른 유심해셔 알아보시오 나는 내일일직이떠나 갈터인즉 로형들은 와셔보실것도업소

두친구는 섭々하다하며 손을잡고 대문까지 나아갓다 노이불탈은 두친구와 작별하고 한편으로 거러오며 한편으로 감안이생각일다

저사람의 말이 매불리가 계집등사에 간섭이잇다 하는것이 어디서난말인지 우편국에를 가셔보면 알것이 총사々が 엇더한사람인가보고 다시의논할것이다 다만 내가가기는 갈터이나 저로내얼굴을 알게하는것은 온당치못하니 달나계교를 하는것이 좃겟다

교사의맨도리를하고 우편국으로왔다 슈염과 얼골빛이 모다거짓것으로 변한것일다 외국에서 정람하는 번령이 이것인데 변하기를 칠팔분이나 흠々해셔 남이 알아낼슈가업다 노이불탈은 묵한아와 비록몇마디 요긴한말을 아니하얏

스나 발셔 묵한아의 사담된것을 헤아려알고 매불리의 원굴한것을 열에아홉이나 짐작한후 작별을하고 나와셔 다른데로 한가히 단이다가 늦게야 여관으로와셔 생각일다

매불리가 억울이된 원인을 알아하면 어디다가 착슈를 헤야할고 묵한아의 형상을보건대 계집에는 범연치 안을것이다

잇쳐림 혼자상량을 하면셔 밤을지내다가 이날받기에 이르러셔 계교하나를싱각하고

올치 이리々々 하얏드면 될터이다

마음에 깃버셔 주의를정하고 이후로 종적을 비밀이해셔 친구를소개해셔 우편국석기로 천거해셔 잇다가 격여극난이가 매불리의게 보내는편지와 묵한아가 격여극난의게 위조한 편지두장을 슈지속에셔 차져낸것이다

하로는 밤이늦도록 안졌다가 열두시나 되야셔 노이불탈은 감안이 문밖글나셔 우편국 갓가이가셔 왔다갓다 하면셔보니 우편국 대문전등밧해 사람하나가셔々 좌우를 자세살피보는것을 무심코보니 다른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묵한아일다 노이불탈은 새정신이나셔 나무뒤에가 숨어셔보노란이 묵한아는 좌우에사람이 업고々요한것을 보더니 압흐로 빨나간다 노이불탈은 대단이의심을 하며 멀니셔々 뒤로싸라가며보니 모다 궁벽한곳이다 한참을 가다가 한곳에



이르러서는 멀리서 보니 묵한아가 대리를 멈추고 서서 가지들아니한다 노이불  
탈은 자제살펴보니 이집은 전일에 와서 불너도 대답을 아니하든집이다 생각을  
한다

을치 이집을 저놈이 비밀이단이는집이로구나 제가 엇더케드러가나 볼것이  
다

생각을하면서 눈으로는보니 묵한아가 사면을 살펴보기을 한참을하다가 싸에  
서 돌하나를 집어서 그집을향하고 던진다 을마있다가 계집하나히 나와서 문  
을열었다 묵한아는 드러가면서 문을닫는다 노이불탈은 그집담을 도라가며보  
니 뒤에 루상창에 불이 빋치었다 노이불탈은 담을넘어다보니 서편에 쇠사대  
리가 노였다 원래 그담에다가 박아두고 그방을 슈리할때면 쓰는것이다 노이  
불탈은 그사대리를발고 을나가니 창아래다가 석판을 노아서 말하나는 의될  
만하다 노이불탈은 석판을발고 몸을벗쳐서 불이빋치는 창아래로가서 창틈으  
로 드러다보니 그집속에 보혈등 하나를달고 그아래다가 큰상한개를노코병  
화한쌍을 노았고 쇠평상한개를노아스나 사람은 하나도업서 고요하고 비인집  
이다 귀를기우리고 드러보니 은々하게 사람의소리가 들린다 감안이생각이다  
이것을 엇지하면 조홀가 저의가 어디잇는것을 알슈가 잇서야지

이리저리 생각하기를 한참을하나 엇지할도리가 업서々 머리를 도리켜서야

래를 내려다보니 샴々한쌍히요 사면에는 모두나무일다 바람부는소리는 굿치  
지아니하는데 또드러보니 말하는소리가 점々크다 다시 드러본즉 싸호는모양  
갓더니 발자취소리가나며 어엿분 계집하나가 나오는데 그뒤에 묵한아가 싸  
라온다 계집의얼굴을보니 눈물을써스면서

그대의마음이 변해서 내자유권리까지 모다 빼셔가고 하고십분것을 마음대  
로하니 나는 그대로 인류동물이 아니로아오

〔묵〕 자네가 나를 욕은할지라도 마음이나 편이하게 내가 이제 그사람의계  
장가를드나 장내에는 자네를 잇지아니할터일세 자네가 만약 내말을밋지아  
니할것갓흐면 중대맹세를 할터일세

〔녀자〕 우리가 혼인할제한 혼서는어디잇소

〔묵〕 우편국상자속에 감추어두엇지

〔녀자〕 그혼서에 중하게한 맹세가업소 그대가 이제무고히 남을음해를해셔 신  
문에 싸지내여명예를손상해노코 그대의음심을 채오려하야 이치에 버셔난  
일을 하면서 맹세는 무슨방귀갓흔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대갓흔인종은 용납  
지아니하실것

묵한아는 대답할말이 업는지 듯고만있다 노이불탈은 생각을한다

을타 내가인제는 분명한 사실을알갓다 그리하나 충분한 증거가업스면 안



될터인즉 시방이라 도가서 혼색을 도적해오는 것이 묘하겠다  
인해서 석관우로 좇차 사대리로 내려온다 다만드르니 머리로써 창을 연다 노  
이불탈은 몸을 업되려서 빨니 내려온다 별안간에 총소리 한번이나며 노이불탈  
의 대리가 마졌다 창을 닦더니 도로 열고

분명이 드렸는데 아난가 어의가 있나

또한 참을 잇다가 창을 닦는다 노이불탈은 생각한다

오날 목숨산것은 참새사람이다 그러하나 몸을상해서 일에 방해가 되지 아닐  
슈가 업는데 만약 성사를 못하면 원통해석 엇지사나

씨를 썰어서 총마진데를 단々이 잡아매고 압픈것을 입을 앙물고 담을 너머서 여  
관으로오니 문이 닫치였다 열나고 부르니 새 안으로써 사람이 나오며  
누가 오셨소

(노이) 예 - 내을시다

그사람이 문을 여려주며

오늘은 어의를 가셨다가 인제 세시나 되여서 오셨습니까  
노이불탈은 입을 찢라서 대답을 한다

천구의 집에서 노름을 흥노라 구애가 느껴가는 것도 아지 못해서 인제 왔서요  
(그사람) 차를 좀 잡슈시려오

(노이) 좇소 한병만 갖다 주시오

노이불탈은 자괴방으로 드러가서 압픈것을 견대기가 어려워서 한참을 쉬노  
란이 그사람이 차를 갖다가 준다 노이불탈은 족기에서 돈십원을 집어내서 그  
사람을 주면서

이것이 노름판에서 어든 것이기로 당신다려 쓰라하오

그사람은 곰맴다고 하며 내려갔다 노이불탈은 방문을 닦고 맨것을 썰너보니 속  
옷에 모다 피요 탄환은 썰코나가서 살에 백이 지는 아니하였다 급히가 방을 열  
고 약을 집어내서 창구에다가 붓치고나서 피무든 옷은 접어서 가방속에너코그  
날밤은 자지 못하였다 잊은날은 조금나은듯하나 일노부터 나가지는 못하며 생  
각일다

그계집의말이 자유권을 모다 빼아서 갖다고하니 그것은 무슨연고인가  
이러듯이 생각하며 일주일동안을 조리하였다 창구가 합창이 되어서 출립하기  
가 여상하다 궁금하든것을 나서소문을 드러보니 묵한아가 사람을 식여서 혼  
인을 정하였다 한다 노이불탈은 생각을 한다

인제는 일이씩 급하게 되었다 지체를 하다가는 낭패가 될가보다  
주저하다가 여관으로 도라오니 날이 느졌다 제녀를 먹고나서 자노란이 제가슴  
속에 맏친것은 자나매나 잊지 못하는 것이다 홀련 들리는 소리가 가장사 온압다